

[목회자 모임- 요한복음]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2019.5.17.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1:1-5]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1~5)

‘빛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도 날마다 보는 자연이고 세계인데 그것을 알 때도 그것이 나하고 관계되려면 빛이 와야 관계가 된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이다. 매일 삼라만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하고 관계되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

눈으로 보는 자연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려면 거기에 맞는 빛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를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제쳐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옛날에는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화가 아니고 계시다. 그러니까 전에 생각지도 않던 것이고 보지도 못하던 것을 지금 새로 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새로운 빛이 필요하다.

현미경에서 세균을 발견하려면 어떤 색깔이 필요해서 염색을 한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염색을 해야 보인다. X-ray를 통해서 사람 속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어떤 빛이 있어야 보인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그냥 삼라만상이다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똑같은 것이다. 나면서부터 계속 봤던 것인데 빛이 오면, 눈이 열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빛이 오면 자기하고 관계된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신화가 아니고 다 계시다. 나를 보여주는 계시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전능자가 나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 때는 아주 다른 때였다. 스물다섯쯤이나 됐을 즈음인데 그때 갑자기 보였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었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앞에 누가 있구나. 나보다 다른 앞에 계신 분이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냥 듣던 얘기와 다르다. 그리고 보니까 그것이 환히 보인다. 어떤 빛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던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더라. 그것을 누가 이론으로 말했다고 해서 정리가 될 리가 없다. 그 사실이 보이니까 정리가 되더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천당이 어디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쌓여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정리가 된다.

이론적으로 알아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다. 내 속 안에서 벗어나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간단한 말이지만 그런 비침 속에서 많은 복잡한 문제가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야 세례 받으라는 것을 미루고 있다가 그 때 처음으로 세례를 자원해서 받았다. 세례가 뭔지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와야 뭐가 보이는 것 같다. 이 빛이 안 오면 아무리 봐도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 그래서 그것이 신화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엉터리니까 신화로 생각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희랍사람들의 ‘로고스’ 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생명이 아닌 로고스를 생명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면 희랍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에서 벗어

난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으면 삶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 예수를 만날 때 빛을 보게 된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그것을 다 예로 들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도 우리가 알던 것이 다 알았다. 성경도 다 알고 다 알았는데 그것이 달밤에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뭐가 항상 미진하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그것이 전부니까 미진한 것이 없다. 달밤 밖에 없는 세계에서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옛날에 호롱불을 켜고 살 때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더 밝은 등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호롱불을 켜고 있으면 벽이 그슬려서 새까맣게 된다. 그래서 시골집들에 가보면 호롱을 얹혀 놓은 자리 위에는 연기가 끼여서 새까맣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했다. 길쌈도 하고 책도 읽고 다 했다. 어둡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아이고 이게 왜 조금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답이 좀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게 된다.

도시에 가서 전깃불을 보고 와서 보면 호롱불이 깜깜하다. ‘왜 이렇게 어두울까?’ 전깃불 밑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 ‘내 눈에 어두워진 것인가?’ 내 눈에 어두워진 것은 아니다. 빛이 원래 그랬는데 내가 밝은 빛을 못 보았으니깐, 그런데 밝은 빛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밤에만 살던 사람은 낮을 못 봤으니깐 낮에 본 것을 모른다. 장님들이 뭘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 것과 다르다. 달밤에 걸어보니까 이십 리 삼십 리를 피난 때 걸어보니까 대강 걷는 것이다. 대강 바다갓길을 걸어서 한 삼십 리를 걸었다. 그냥 걷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보이려면 계시가 있어야 한다. 그 빛이 있어야 한다.

이 빛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니까 요한은 지금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고 말한다. 요한은 지금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 어찌고저찌고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다 그리스도다. 그분을 두고 지금 한 말이다.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빛을 만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새로운 빛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분의 교훈, 이적,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빛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빛이 호롱불인지 램프인지 전깃불인지 그것이 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을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안수를 했더니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뭔가 놀랄 것이고 감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빛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거기서 좀 빛을 본 사람도 있고 더 밝게 본 사람도 있고 다. 차이가 있다. 눈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안경을 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안경을 끼지 않고 볼 때와 끼고 볼 때가 아주 다르다. 물체 크기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 돋보기를 쓰게 되면 이것이 크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크기가 달라지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른다. 전에 안경을 끼지 않고 봤을 때 모양과 돋보기를 썼을 때는 커지니까 이때 헛갈린다. 돋보기를 끼게 되면 어떤 것이 정상적인 크기인지 헛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된다. 밝은데서 본 것과 어두운데서 본 것이 다르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그 분을 알 때 그분 안에 빛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찾으려고, 빛 자체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빛을 찾을 수 없다. 따로 어디서 빛을 찾겠는가.

나도 한때는 기도를 해서 산 기도를 해서 뭘 좀 만나봤으면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간절하게 했다. 했는데 나는 거기 소질이 없는지 안 되더라.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탄 사람도 본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다. 그렇게 해 봤다는 것 밖에는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하

겠지만 나는 그것이 안 되더라.

나는 지금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다르게 보인 것이 많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온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뭐를 다른 것들 또 본 것 같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볼 것인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다. 어디로 돌아갈 줄을 몰랐다. 내가 어디 있다가 나왔는지를 몰랐다. 창세기 3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실감이 안 난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고 내가 거기서 추방되어서 3장의 세계로 왔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경험이 전혀 없다. 선악과를 먹고 나왔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좋은 어떤 동산이 있었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어디로 돌아오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시원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 맺혀있던 어떤 것들을 청산하니까 좀 시원했을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고 시원했던 것처럼 자기도 말 못하는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나니까 좀 시원했을 것이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 같다. 어디서 나를 부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는데 길이 어디 있겠는가. 길은 많이 있는데 어느 길이 그리 가는 길인지 모른다. 소리라도 들려야 알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만큼 회개를 많이 하는 데가 없는데 맨날 회개를 해도 도로 그 자리이다. 처음에 약간 좀 다르다가 도로 그 자리이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회개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자기 마음에 맺혀있는 그것을 회개할 것이다.

내가 동산에 있었던 경험이 없으니까 뭐를 회개할 것인지를 모른다. 거기 있어야 내가 ‘아이고 내가 거기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구나.’ 이렇게 알텐데, 거기 있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도 못 들어 봤고 먹어야 된다는 말도 못 들어봤다. 아무것도 못 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에만 써 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만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신화가 아니다. 내 얘기이다. 전부가 내 얘기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자리를 알아야 돌아갈 자리가 있다.

구속이니 구원이니 모두들 말을 하는데 불교 같은데서 기독교를 생각하면 아주 유치하게 생각한다. 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유치하게 생각을 한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성불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앉아서 누구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우습게 들리지 않겠는가. 우리는 옳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일이다.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없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스운 짓이다.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스운 짓을 하는 것이다.

불가에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 불가에서도 옆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났다가 기도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기 보다는 뉘우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것이 나올 것 같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웃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인색했습니다. 이것을 뉘우칩니다. 이렇게 항목이 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 하던 것이 기도로 기도문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중언부언 한다. 지 멋대로 회개하고 지 멋대로 우는데 뭇 때문에 우는지 모른다. 왜 우는지를 모른다. 옆에서 우는 사람들을 봤는데 나는 왜 우는지를 모르겠더라. 다 자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겠지만 왜 저렇게 우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사연 때문에 울고 이런 것을 보면 이상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지 않느냐 하면 다음에 또 그러다.

떨어진 자리가 분명해야 돌아갈 자리를 알게 된다. 떨어진 자리를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다. 뭐를 잃어버렸는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뭐를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우리가 언제 생명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가?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다는데 언제 내가 생명을 잃어봤는가. 내가 어떤 위

치를 이탈해 버렸는데 그 위치 이탈을 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것을 가지고 모두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셈이다. 다 빛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한다.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우리 앞에 전시가 됐는데 우리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 나는 거기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

‘야 저것이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고 뭐 하나님 같다느니 안 같다느니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습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같다.’ 이랬던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저런 일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제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아 저게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나를 보니까 허풍선이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줄 몰랐다.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가.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 봤어야지. 왕초 노릇 한 사람들, 대통령 노릇 하려고 한 사람들은 말하면, ‘아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하면 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봤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기를 ‘집구석에서 마누라에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유를 하지만 그것이 뭐 하나님 같이 된 일인가. 자기 집구석에서 왕초 노릇을 한다고 그것이 뭐 하나님 같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뭐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아 우리가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구나. 저게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분이 아니면 우리는 깜깜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깜깜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우리는 세상은 다 잘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바깥에서 새로 온 것이지 우리 속에 상상 속에 있던 것이 아니다.

인도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에 가는데 좋은데 가는데 거기는 우유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시원한 바람이 있고 그런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죽어서 좋은 데를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기화요초가 풍부하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

죽어서 보고 온 사람도 다 다르다.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증거 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처음에는 깜깜한 터널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확 비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깜깜한 화장실에 가둔다. 광에 가둬놓고 한 시간을 여기 있어 하면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된다.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간다고 하는데 깜깜한 터널을 갔다고 하고 그런데 갑자기 확 빛이 비춰오더라.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가 오면 어디를 가봤더니 천당은 서로 먹여주더라. 이런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한다. 이것이 사람 생각이다.

하나님나라는 전적으로 그런 것과 무관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생각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봐지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봐 지는 것, 그것만이 진실하다.

거짓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 자기는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 놀라운 일이더라.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 모른다. 그래서 거짓말 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나빠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하는 말이 저 높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아예 대놓고 숨 쉬는 것 빼놓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기를 모르는 것 같다. 더군다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모르는 나라다. 우리가 성경이 그냥 써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계시다. 어느 날 그것이 나를 보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들려야 그것이 알아듣는 말이 되지 남 얘기로 들려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참 아름다워라.’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가. 일시적인 감동이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길이 어디 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한다. ‘빛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내가 빛이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 인격이 그 빛이다.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호롱불을 아무리 밝힌들 그 광도가 나오겠는가. 연기만 나고 그을음만 난다. 호롱불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램프가 있었다. 호롱불보다 밝지만 그것도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 한계를 넘어가니까 연기만 난다. 그것이 전깃불처럼 되겠는가.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진실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그 진실한 사람 안에서 진실을 보게 된다. 죽으심 안에 있는 그 분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 그 빛으로 무엇을 봐야 그것이 진실한 것이 된다. 다른 것으로 보면 진실한 것이 안 된다.

우리도 다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해도 이것과는 다르다. 아무리 정직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이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무슨 도를 하는데 아주 선하게 컸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러 왔다. 전도자들이 보통 그렇다. 사람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죄를 모른다고 했다.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한다.

이 전도자가 다음날 또 와서 또 죄가 있다고 했다. 성경을 펴 놓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없습니까?’ 하니 ‘나는 모릅니다.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 일주일을 조르다가 갔다고 한다. 일주일동안 죄를 성경에서 다 찾아서 지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했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하니 할 수 없어서 그 전도자가 돌아갔다.

그런데 아들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다. 처음 나온 날 보더니 ‘천국에 따로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 무엇을 보고 한 말인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자기로서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천국이 따로 없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첫날 와서 그런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르구나. 뭔가를 자기는 봤으니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산발적으로 있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른다. 이 사람은 이랬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랬다고 하고 모른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 안에 그 자리에서 보는 것만이 진실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록 영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분 안에 있다. 내 영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내가 멸시하고 무시했던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때 바로 자아발견이다. 자기를 그때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위치가 이탈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모든 인간이 어떻게 위치를 이탈했는지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는 이 죄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사람도 그 죄가 뭔지 모른다.

우리는 위치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바른 위치로 사람이 돌아가려면 예수가 필요하다. 지혜를 얻으려면 석가모니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인생의 위치로 바로 돌아가려면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복음은 이것이다. 사람을 사람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자리로 위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인격회복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격을 잃었던 것이다. 인격을 잃어버렸다. 내

격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봤다. 인격을 만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오만 것을 다 해봤다. 해 봤는데 인격이 만들어 지겠는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인격인데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인격을 만들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인격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겠는가. 만들었으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가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내가 또 만들었으면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가짜다.

정말 사람의 자리, 그 자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을 떠난 모든 자리는 이탈된 자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는 것이다.

중국에 모택동 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주은래다. 모택동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이 숙청되었다. 그런데 주은래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절대로 1인자가 되지 않고 2인자였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그 직위에 있었던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모택동이 생각할 때 조금만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모두 숙청했다. 혁명 동기들을 모두 숙청했다. 그런데 주은래는 숙청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개석을 대만으로 피난시켜준 사람이었다. 국민군이 몰려서 대만으로 갈 때 그 길을 주선했던 사람이 주은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장개석에게 보냈다. 지금 그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대만 국립박물관에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몇 개의 무더기로 갈라서 돌아가면서 전시한다고 한다. 그 많은 보물을 다 챙겨서 장개석에게 주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쫓겨나는 사람에게 다 주었다. 정치가로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다. 주은래는 미국 사람들도 놀라는 그런 사람이다. 한국전쟁 때는 주은래가 주동자였다. 항미원조라고 해서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고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주은래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킨 사람이었다. 북한에서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였다. 김정은이 자리를 잡을 때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결국 기관총을 쏘서 죽여버렸다. 뭔가 이상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독재자들의 결과가 다 그런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는 제 2인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따로 없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흙으로 비유를 했다. 흙은 자기 자신은 열매가 없는데 씨를 심으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자기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가을이 오면 주인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것인가 하면 자기의 것이 아니다. 가을이 되면 주인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흙은 도로 빈자리다. 내년이 되면 누가 와서 심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흙의 영광이다. 언제나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흙의 영광인데 이게 바로 사람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산자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다 가짜를 만들어 버리고 만다.

예수는 빛이다. 우리에게 빛이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빛이고 진실을 보는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길이 따로 없다. 그분이 길이요. 빛이 따로 없다. 그분이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다.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빛을 발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 동안에 사랑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빛을 발휘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소금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고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많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염전인가? 소금을 만드는데가 아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면 소금이 따로 없다. 우리가 빛이 아니면 빛이 따로 없다. 우리가 길이 아니면 길은 따로 없다.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그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한다. 황 해버렸다. 공자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부처님 제자들도 따라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 깨닫는 것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면 갈수록 모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알 것 같았다가도 뒤로 가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너 알잖아. 너 그 패잖아.’ 하니까 ‘아니 난 모른다. 맹세코 나는 모른다.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모른다.’ 진짜다. 그게 맞는 말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상식에서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된다.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간다.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이삭이 왔다.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왔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길이 열렸다.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길이 열린 것이다. 예수께로 오는 길은 다 그런 길이다. 내가 모르던 길이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고 내게는 생각도 못했던 길,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모르던 길을 가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한다. 내가 모르던 길을 간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내가 모르던 길을 가게 한다. 그게 너무너무 축복되고 감사가 된다. 내가 아는 길로 내가 찾아갔더라면 꼬라지가 뭐가 되었겠는가?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길로 끌고 갔다. 전혀 모르던 길로 말이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봐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계획해서 하면 다 안 된다. 결혼도 시켜 놓으면 안 되고 뭘 시켜 놓으면 잘 안 된다. 내가 하니까 안 돼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안 하려고 한다. 중매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세계로 나는 간다. 전혀 모르는 세계로 가는 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뭘 전하겠는가? 무슨 간증을 하겠는가? 다 아는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간증하겠는가?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한다.

바울이 말한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갈 데가 없다. 구멍은 하늘 밖에 없다. 뚫린 곳은 하늘 밖에 없는 데 벽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거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라. 어떻게 되겠는가? 누군가 바깥에서 와서 끄집어내야지 거기서 발버둥을 친다고 나올 수가 있겠는가?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 바로 그 모양이었다. 사방이 다 막혀 버리고 열린 곳을 하늘 밖에는 없는 데 성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뛰어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누가 와서 포크레인으로 꺼내듯이 딱 꺼내서 갔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옮기듯 그렇게 옮겼다. 나는 전혀 모르는 세계를 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모르는 세계를, 계획하지 않았던 세계를 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살았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산 적이 없는 것 같다. 다 내가 상상했던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된다.

『주의 손에 이끌려』는 알고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썼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든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고 이런 말을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전혀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나를 불러내서 내가 모르는 세계로 끌고 가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썼다. 그래서 공감 가는 사람은 참 재미있을 것이고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은 정말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일부러 숨기려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내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밖에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 분이 하시는 일이 크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지도 모른다. 내가 대구에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은 아무도 상상도 못할 일이고 꿈도 안 꾀본 일이다. 그것이 우리 부름 받은 사람의 삶이다.

부름, 어디로 부름 받았는가? 다른 세계로 부름 받았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다른 곳이라는 말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계로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이 생명의 빛은 결국 예수의 빛이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빛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빛이 우리에게 보인 곳이 십자가가 아닌가? 그 전에 뭘 하던 것도 다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비판이 다 생긴다. 그런데 십자가는 비판할 수가 없다. 아무도 비판할 수가 없다.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사탄이 할 일이 없어졌다. 자기 할 일이 다 끝나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

그 세계 속에 있으면 어차피 또 걸려 들어간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언제 걸릴지 모른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어서는 언제 내가 걸려 들어갈지 모른다. 한 번 걸려 들

어가면 일생 닦아 놓은 것이 다 헛일이 되어 버린다.

망하는 사람도 그렇다. 주식을 하는 데 10번 잘 하다가 한 번 망해버리면 다 망하는 게 아니겠는가?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계, 그 판에 있으면 언제 내가 넘어갈지 모른다. 부르심의 세계로 와야 된다. 부르심의 세계는 부르심의 세계대로 길이 있다. 그 길을 보니까 간단하고 너무 쉽다.

아주 복잡했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도 길이 너무 많았으니까 복잡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많으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나온 것 같고 다 그렇게 된다. 이사야 시대가 다르고 예레미야의 시대가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니까 또 선지자들이 다르니까 또 말이 달라진다. 언제 그것을 다 외우겠는가? 언제 그 길을 다 가 보겠는가?

부르심의 세계는 한 길 뿐이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부름 받은 길이다. 이 길은 따로 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 섞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안 섞일 방법이 있는가? 길이 같은 길인데 그 길에 사면 그 길 따라 가야 된다. 그 길을 가면 그 길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서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의 세계로 와야 된다. 그 세계의 길을 알고 가야 된다. 잔피를 부려봐야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먹혀 들어간다. 내 지혜를 발동하면 오히려 먹혀 들어가 버리고 만다. 사탄이 더 지혜롭다. 하나님은 세계 속에 놓아두고, 세상 속에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러낸 것이다.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은 교리 문제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부르심의 문제다.

뭘 하려고 불렀는지 나는 그것도 잘 몰랐던 것 같다. 부르신 줄은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다. ‘목회하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목회하라고 부른 게 아니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 어디까지 불러갈지 그것도 모른다. 모르지만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창경원에 가듯이 보이는 것마다 다 새롭고 신기하다. 다른 세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은 본 것마다 새롭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언제나 늘 새로운 길이다. 다른 길이다. 우리가 애쓰던 것을 애 써도 안 되고, 우리가 애 쓰지 않아도 될 일은 되고 애 써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그렇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길로 부름 받은 것이 은혜다. 세상 속에 그냥 놓아두면 아무리 잘 해도 안 된다. 다른 길로 부름 받은 것, 이것이 축복이다. 트랙을 잘 타야지 엉뚱한 곳으로 달려 봤자 소용이 없다. 길을 비켜서 간 것은 가 봐야 헛일이다. 바른 길로, 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는 부름 받았으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되어 있다. 어렵지 않다. 아주 간단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 되길 바란다. 그분의 죽으심도 나에게서 빛이 되고 십자가에 전시된 것도 나에게 빛이 되고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나에게서 빛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뛰어내리지 못한 것을 확실히 알면 빛이 된다. 확실히 알면 그것이 빛이 된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된다. 장대에 달린 낫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 잘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산다. 누구든지 살아난다. 인간으로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인격으로 회복되면 됐다.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회복되면 된 게 아닌가? 회복되면 뭘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회복되면 뭐하냐는 사람이 있다. 일단 회복되고 볼 일이지 회복도 안 되었는데 회복되면 뭐하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 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상 뭘 더 바라는가? 지\*하는 것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한다. 다른 데 서는 지\*한다는 말을 굉장히 다르게 듣는다. 전라도에서는 그 말을 많이 한다. ‘지\*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

신랑을 만났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뭘 하는가는 왜 물어보는가? 김\*중씨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어찌할 겁니까? 핍박하던 사람들을 손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춘향이를 만



났으면 됐지. 뭘, 그럴 것이 있는가?’ 했다. 졸개들은 지금 춘향을 만나도 다른 것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럽다. 안 그런가? 그분은 정말 정치가였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별명이 인동초다. 그런데 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춘향이 만났으면 그만이지 뭘 더하느냐고 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됐지 뭘 또 더 한단 말인가? 예수와 하나 됐으면 됐지, 예수를 내가 참 신랑으로 맞이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시집가면 뭘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좋은 신랑 만났으면 됐지 시집가면 뭘 하느냐고 시집가서 뭘 하는지 알고 시집가면 되는가? 뭘 하는지 모르고 시집가야 된다.

예수를 만난 일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나에게 없는 일이다. 하나도 나에게 없는 일이고 그분이 가신 길은 하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내가 안 가본 길이다. 그러니까 재미있다. 전혀 안 가본 길이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전혀 못 가본다. 가 볼 수 없는 길이다. 그분 때문에 이상하게 간 것이다. 전혀 놀랍게 새로운 데를 간 것이다. 신기한 것을 못 봤으면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러면 신기한 일을 보게 된다. 신기한 일을 못 본 사람들은 맨날 옛날에 하던 일을 되풀이 하게 된다. 그것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부르셔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이 부름 받은 세계 안에 또 길이 분명하게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됐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됐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 부활 해 보고 말고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 안에 있으면 됐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그분이 천당 가면 나도 천당 가는 것이고 그분이 지옥에 가면 할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어찌겠는가?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지옥 간다고 자기는 뿌리치고 천당 가겠는가? 할 수 없다. 한번 맺어지면 어쩔 수 없다. 운명적으로 만나지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각오해야지 가서 다른 것 할 생각을 하면 시집을 못 간다. 고무신을 두 개 사서 시집을 가면 되겠는가? 한 개만 신고 가야지....

감사합니다.